

A study of the survey of student counseling center for an university

Moon, Inn-Oh

Dep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Keyword : university students, student counseling
center, awareness, satisfaction,
program

Lee, Jeong-Ran

Kim, Yung-Hoon

Dep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CONTENTS

- I. Introduction
 - II. Research method
 - III. Result and Inquiry
- Reference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collect and analyze information for providing interlinked support and active services to students from their entrance to employment after graduation through surveying the current state of the Student Counseling Center at a university.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by distributing questionnaires to about 25% of students including freshmen through seniors at each of 21 academic departments of W University in I City during the period from the 17th to 21st of November, 2014, and recovering them. A total of 1,4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with exclusion of 23 questionnaires unrecovered and 19 ones inadequately answered, 1,358 questionnaires were used as valid data. The questionnaire was developed by the present counseling center, and it consisted of 30 questions in 10 areas. Collected data were processed with SPSS WIN 21.0.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biggest concerns of the subjects were their future career and employment (60.9%). In addition, 45% of the respondents did not know the existence of the Student Counseling Center, and 40.6% of the students who had used the center replied that they were satisfied with the services. Only 7.0% of the respondents replied that they had an experience in using the counseling room of the Student Counseling Center, and 64.2% of the respondents had an experience in counseling with the lifelong supervisor. The most common issue of counseling was employment as found in 46.1%.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suggested to strengthen the publicity of the Student Counseling Center through more specific publicity strategies, to activate diverse programs for resolving students' issues related to employment and study, and to improve the roles of the Student Counseling Center through strategic support for the lifelong supervisor system.

Received : 27 August, 2015.

Revised : 01-30 September, 2015.

Accepted : 16 October, 2015.

† Corresponding author : Kim, Yung-Hoon, 54538, 514 Iksandaero Iksan-city Jeonbuk,

Dep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Tel : +82-63-840-1244 HP : +82-10-9708-7575

Fax : +82-63-840-1249 E-Mail : kimyh@wu.ac.kr

일개대학의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실태조사 연구

문 인오(文仁五)
이 정란(李貞蘭)
김 영훈(金永熏)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원광보건대학교 치기공

중 심 어 : 대학생,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인식도,
만족도, 프로그램

목차

- I. 서론
 - II. 조사방법
 - III. 결과 및 고찰
- 참고문헌

요약

본 연구는 일개대학의 학생생활상담연구소에 대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학생들의 입학에서부터 졸업 후 취업까지 연계된 지원과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를 위한 자료는 2014년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1시에 위치한 W대학의 21개 학과에 학과별로 모든 학년별로 학생 수 대비 약 25%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다. 총 1,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회수되지 않은 설문지 23부와 응답이 불성실한 19부를 제외한 1,358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상담연구소에서 자체 제작한 총 30문항, 10개영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SPSS WIN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대상자들이 고민하는 문제로는 진로 및 취업문제(60.9%)가 가장 많았으며, 응답자의 45%가 학생생활상담소의 존재여부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용한 학생의 만족도는 40.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학생생활상담연구소의 상담실은 7.0%만이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평생지도교수와 상담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64.2%이었으며, 상담 내용은 취업문제가 46.1%로 가장 많았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홍보전략을 통해 학생생활상담연구소의 홍보를 강화하고, 취업 및 학업문제와 관련된 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평생지도교수제에 대한 지원전략을 통해 학생생활 상담연구소의 역할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제언한다.

투고일자 : 2015. 08. 27.
심사기간 : 2015. 09. 01.-09. 30.
게재확정일 : 2015. 10. 16.

교신처 : 김영훈, 570-750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14

Tel : +82-63-840-1244

HP : +82-10-9708-7575

Fax : +82-63-840-1249

E-mail : kimyh@wu.ac.kr

I. 서론

1. 조사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청년 후기 또는 성인 초기에 속하는 시기로서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여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발달과제를 지니고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하였다(이혜숙, 송선옥, 2011, 145-175). 그러나 대학입학 후 고등학교의 통제된 생활에서 해방되었다는 해방감이 대부분의 경우 과음과 폭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 과음으로 이어진 경우 대부분 비행으로 이어지기 쉬워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사고뿐 아니라 폭력이나 성폭행 등에 이르기까지 그 문제는 다양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최귀덕, 2008, 57-71). 또한 시대와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대학생들의 특성과 가치관, 학교에 대한 태도, 학과 및 직업선택 배경 등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대학 입학 후 학생들이 새롭게 직면하게 되는 자율적인 학업수행, 생활계획, 진로선택, 대인관계 등의 발달 과업들은 일률적인 교육환경에 익숙해진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이는 대학생활 부적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오은정, 김민선, 정소라, 2015, 1-133).

따라서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대학 당국이 입학에서부터 졸업 그리고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충분한 제도적, 인적, 그리고 시설적인 여건을 갖추고 서비스를 지원해야만 한다.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대학은 학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변화할 수 있는 대학이다. 그 어느 때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다분화 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성장한 세대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적응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며, 학생들의 생활, 진로, 학업, 학교, 일상생활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의 적응과 가치관이 매년 달라지고 있기에 대학당국에서도 보다 세밀한 관심과 정확한 조사 분석이 요구되어진다(오은정, 김민선, 정소라, 2014, 1-162).

이를 위해 많은 대학들은 상담기관으로써 ‘학생생

활연구소’나 ‘학생상담센터’ 등을 설치하여 대학생들의 학업적, 심리적, 발달적 영역에서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 대학에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생활상담소연구소와 같은 기관의 인식도 및 만족도 등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다(이유정, 2012, 43-63).

이에 본 연구는 대학 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생활상담연구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입학에서부터 졸업 후 취업까지 연계된 학교 내 지원과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향후 학생생활상담연구소의 활성화 정책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2. 조사 목적

본 연구는 2014년 11월 I시의 W대학 내 학생생활상담연구소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이다.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실태조사는 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고민, 가치관의 변화, 대학생활의 만족도 그리고 상담소 이용도 및 만족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학교 관련 부처 및 본 상담소가 학생들의 입학에서부터 졸업 후 취업까지 연계된 지원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조사방법

1. 조사 대상 및 시기

본 조사는 2014년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I시에 위치한 W대학의 21개 학과의 학년별 학생수를 파악한 후 학생 수 대비 약 25%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를 배부하기 전 학과 조교에게 실태조사의 목적과 회수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각 반에 들어가 설문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배부하여 그 자리에서 작성한 후 회수하도록 하였다. 총

1,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회수되지 않은 설문지 23부와 응답이 불성실한 19부를 제외한 1,358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 도구

본 조사의 도구는 손연아(2011), 손요한(2014), 정은영(2012) 등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으며, 생활상담연구소의 연구위원 3인과 교내 재직 교수 10인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통해 설문 내용을 구성하였다. 조사도구는 일반적 특성 7문항, 학생생활상담연구소에 관한 인식도 2문항, 이용도 및 이용의도 4문항, 만족도 2문항이며,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운영 12문항, 역할 5문항, 앞으로의 방향 7문항이었으며, 평생지도교수제와 관련된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조사의 자료분석은 SPSS WIN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각 문항별 분석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일반적 특성

본 실태조사에 응답한 1,3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성별은 남학생 390명(29%), 여학생 968명(71%)으로 여학생이 많았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609명(45%), 2학년 508명(37%), 3학년 201명(15%), 4학년 40명(3%)이었다. 학부별로는 보건의료학부가 637명(46.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호텔관광외식학부 198명(14.6%), 간호학부(145명(10.75))의 순이었다.

대상자들이 현재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는 1위 진로 및 취업문제(60.9%), 2위 학업문제(24.0%), 3위 이성문제(4.4%)로 나타났으며, 고민 상담자는 친구나 선배 698명(51.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1).

〈표 1〉 일반적 특성

(N=1,355)

특성	구분	N	%
성별	남	390	28.7
	여	968	71.3
학년	1학년	610	44.9
	2학년	508	37.4
	3학년	201	14.8
	4학년	40	2.9
학부	보건의료학부	637	46.9
	보건복지학부	128	9.4
	호텔관광외식학부	198	14.6
	간호학부	145	10.7
	한류예술학부	130	9.6
	군사학부	120	8.8
고민	학업문제	326	24.0
	진로 및 취업문제	826	60.9
	이성문제	59	4.4
	성문제	9	0.7

특성	구분	N	%
고민	가족문제	6	0.4
	성격문제	30	2.2
	경제문제	44	3.3
	친구문제	26	1.9
	기타	30	2.2
고민상담자	스스로	274	20.2
	친구나 선배	698	51.5
	부모님	262	19.3
	교수님	59	4.4
	상담실	10	0.8
	기타	51	3.8

* 무응답자 제외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민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고민에 대한 분석은 <표 2>와 같다. 성별에 따른 고민은 남학생, 여학생 모두 진로 및 취업 문제가 227명(58.5%), 599명(61.9%)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년별 가장 큰 고민도

1~4학년 동일하게 진로 및 취업문제로 나타났다. 학부별 분석 결과 가장 많이 고민하는 1순위는 간호학부의 경우 학업문제가 1순위, 진로 및 취업문제가 2순위로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하게 진로 및 취업문제가 1위, 그 다음이 학업문제의 순이었다.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고민

(N=1,355)

구분	N(%)	학업 문제	진로및 취업 문제	이성 문제	성문제	가족 문제	성격 문제	경제 문제	친구 문제	기타
성별	남	74 (19.1)	227 (58.5)	28 (7.2)	5(1.3)	1(0.3)	5(1.3)	20 (5.2)	10 (2.6)	18 (4.6)
	여	252 (26.1)	599 (61.9)	31 (3.2)	4(0.4)	5(0.5)	25 (2.6)	23 (2.4)	16 (1.7)	12 (1.2)
학년	1	170 (28.0)	339 (55.8)	32 (5.3)	4(0.7)	2(0.3)	13 (2.1)	19 (3.1)	9(1.5)	20 (3.3)
	2	99 (19.5)	323 (63.7)	22 (4.3)	4(0.8)	3(0.6)	13 (2.6)	20 (3.9)	15 (3.0)	8(1.6)
	3	44 (21.9)	144 (71.6)	3(1.5)	1(0.5)	-	4(2.0)	3(1.5)	1(0.5)	1(0.5)
	4	13 (33.3)	20 (51.3)	2(5.1)	-	1(2.6)	0(0.0)	1(2.6)	1(2.6)	1(2.6)
학부	보건의료학부	165 (12.2)	392 (28.9)	16 (1.2)	4 (0.3)	2 (0.2)	16 (1.2)	15 (1.1)	10 (0.7)	15 (1.1)
	보건복지학부	26 (1.9)	82 (6.0)	5 (0.4)	-	-	1 (0.1)	6 (0.4)	3 (0.2)	5 (0.4)

구분 N(%)	학업 문제	진로및 취업 문제	이성 문제	성문제	가족 문제	성격 문제	경제 문제	친구 문제	기타	
학부	호텔관광 외식학부	29 (2.1)	142 (10.5)	8 (0.6)	—	1 (0.1)	4 (0.3)	6 (0.4)	4 (0.3)	4 (0.3)
	간호학부	67 (4.9)	56 (4.1)	5 (0.4)	2 (0.2)	2 (0.2)	5 (0.4)	3 (0.2)	2 (0.2)	2 (0.2)
	한류예술학부	22 (1.6)	79 (5.8)	13 (0.9)	2 (0.2)	—	4 (0.3)	3 (0.2)	5 (0.4)	2 (0.2)
	군사학부	17 (1.2)	74 (5.5)	12 (0.9)	1 (0.1)	1 (0.1)	—	10 (0.7)	2 (0.2)	2 (0.2)

* 무응답자 제외

2. 학생생활상담연구소

1) 인식도

학교 내에 학생생활상담연구소의 존재여부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전혀 몰랐다' 610명(45.0%)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생활상담연구소의 존재여부에 응답한 대상자에게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지나가다 우연히 414명(57.1%)', '선생님의 소개로 93명(12.8%)', '홍보물을 통해 62명(8.6%)' 순으로 나타났다(표 3).

2) 이용도

학생생활상담연구소를 128명(9.6%)이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용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은 본인 스스로가 51명(40.2%)로 가장 많았으며, 교수님의 권유는 36명(28.3%)로 나타났다. 학생생활상담연구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환경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2명(40.6%)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에 대해서는 61명

〈표 3〉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인식도

(N=1,355)

특성	구분	N	%
인식도	전혀 몰랐다.	610	45.0
	들어본 적 있다.	366	27.0
	이름과 위치 정도는 안다.	163	12.0
	들어본 적은 있으나 하는 일은 정확히 모른다.	139	10.3
	잘 알고 있다.	77	5.7
경로	친구의 소개로	41	5.7
	선생님의 소개로	93	12.8
	홈페이지를 통해	60	8.3
	홍보물을 통해	62	8.6
	연구소 프로그램 참여로	38	5.2
	지나가다가 우연히	414	57.1
	기타	17	2.3

* 무응답자 제외

(48.4%)이 ‘보통’, 444명(34.9%)은 ‘만족’한다고 하였다. 학생생활상담연구소를 이용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중복응답 조사한 결과 ‘관련시설에 대한 정보부족’이 822명(44%), ‘이용할 시간이 없어서’ 493명(26%), ‘사람들의 이목이 신경 쓰여서’ 224명(12%)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생활상담연구소를 이용한 적이 없었던 대상자들에게 필요하다면 이용할 생각이 있

는지를 조사한 결과 577명(49.7%)이 ‘혼자 노력하다 안 되면 찾아가겠다.’고 응답하였다 <표 4>.

3) 활성화 방안

(1) 홍보방법

학생생활상담연구소를 홍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유인물(소책자나 브로셔 배포 등)’ 484명

<표 4>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이용도

(N=1,339)

특성	구분	N	%
이용유무	예	128	9.6
	아니오	1211	90.4
이용경로	본인 스스로	51	40.2
	부모님의 권유	11	8.7
	교수님의 권유	36	28.3
	친구나 선후배의 권유	21	16.5
	기타	8	6.3
환경만족도	매우 만족	10	7.8
	만족	52	40.6
	보통	50	39.1
	불만족	14	10.9
프로그램 만족도	매우 불만족	2	1.6
	매우 만족	7	5.6
	만족	44	34.9
	보통	61	48.4
이용의 어려움 (중복응답)	불만족	14	11.1
	매우 불만족	0	0.0
	관련시설에 대한 정보부족	822	44
	사람들의 이목이 신경 쓰여서	224	12
	이용할 시간이 없어서	493	26
	시설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137	7.4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48	2.6
	선생님들이 불친절해서	37	2.0
함께 이용할 친구가 없어서	58	3.1	
이용의도	기타	42	2.3
	기꺼이 이용하겠다.	192	16.6
	혼자 노력하다 안 되면 찾아가겠다.	577	49.7
	이용할 것 같지 않다.	391	33.7

*무응답자 제외

(24.9%),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위한 홍보’가 399명(20.5%)으로 조사되었으며, 홍보방안의 기타 의견으로는 ‘각 건물마다 사람과 홍보센터가 있어야 한다.’, ‘SNS’, ‘SMS’, ‘간판설치’, ‘꾸준한 홍보’ 등의 의견으로 응답하였다(표 5).

(2) 활성화 방안

학생생활상담연구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학교나 재단이 노력해줘야 할 부분을 조사한 결과 ‘상

담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5점 만점에 3.80 ± 0.91 점, ‘보다 이용하기 좋은 친근감 있는 시설 확충’이 3.77 ± 0.86 점, ‘학생종합문화공간과 같은 이미지 개선’이 3.65 ± 0.85 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연구소 스스로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성격, 진로, 심리정서 등 자아탐색과 성장을 위한 보다 다양한 심리검사 진행’이 3.79 ± 0.88 점, ‘학생생활상담연구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3.79 ± 0.87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6).

〈표 5〉 학생생활상담연구소 홍보방법

(N=1,350)

구분	N	%
인터넷 홈페이지 적극 활용	332	17.1
유인물(소책자나 브로셔 배포 등)	484	24.9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위한 홍보	399	20.5
학교 축제나 이벤트를 통한 홍보	357	18.5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워크숍 개설을 통한 홍보	342	17.6
기타	28	1.4

*중복응답

〈표 6〉 학생생활상담연구소 활성화방안

(N=1,351)

특성	구분	Mean ± SD (범위: 1~5점)
학교지원	상담센터에 재정적 지원	3.48 ± 0.86
	상담센터에 인력적 지원	3.50 ± 0.85
	상담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3.80 ± 0.91
	학생종합문화공간과 같은 이미지 개선	3.65 ± 0.85
	보다 이용하기 좋은 친근감 있는 시설 확충	3.77 ± 0.86
	다양하고 필요한 프로그램과 워크숍 개최	3.59 ± 0.89
	인터넷 홈페이지의 활성화	3.62 ± 0.87
자체 노력	대학생에게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3.71 ± 0.86
	보다 활발하고 심층적인 개인, 집단상담 진행	3.73 ± 0.87
	성격, 진로, 심리정서 등 자아탐색과 성장을 위한 보다 다양한 심리검사 진행	3.79 ± 0.88
	학생생활상담연구소의 친근성 및 신뢰성 강화	3.77 ± 0.87
자체 노력	학생생활상담연구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3.79 ± 0.87
	지속적인 프로그램 및 시설관리	3.72 ± 0.86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이름이나 이미지 개선 및 변경	3.63 ± 0.86

* 무응답자 제외

4) 학생생활상담연구소의 방향

(1) 운영 방안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비밀보장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가 5점 만점에 4.25±0.9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진로 및 적성관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3.94±0.89점, '상담소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3.84±0.91점의 순으로 응답하였다<표 7>.

(2) 역할과 방향

학생생활상담연구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곳이

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대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적성, 진로, 취업, 교양에 관한 다양한 심리검사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다.'라는 응답이 5점 만점에 3.74±0.93점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학생생활상담연구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대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5점 만점에 3.79±0.90점,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경제지원 서비스 중심'이 3.70±0.92점, '대학생들의 정서적 지지와 심리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중심'이 3.69±0.89점의 순으로 응답하였다<표 8>.

<표 7>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운영방안

(N=1,351)

내용	Mean ± SD (범위: 1~5점)
장소가 이용하기 편했으면 좋겠다.	3.80±0.91
비밀보장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	4.25±0.95
야간에도 이용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3.45±1.00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3.56±0.87
정신건강 및 심리검사 관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3.75±0.91
진로 및 적성관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3.94±0.89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3.71±0.87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3.36±0.95
성적/학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3.82±0.91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상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3.70±0.91
상담소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3.84±0.91
학교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안내책자 발간 등이 필요하다.	3.65±0.90

<표 8>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역할과 방향

(N=1,356)

특성	내용	Mean ± SD (범위: 1~5점)
역할	대학생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하는 시설이다.	3.58±0.96
	대학생의 심리적 문제나 어려움 등을 해결해주는 상담을 주로 하는 곳이다.	3.73±0.93
	대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적성, 진로, 취업, 교양에 관한 다양한 심리검사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다.	3.74±0.93
	대학생들의 건강한 정서와 심리상태를 위해 지도하고 대학생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곳이다.	3.70±0.90
	대학생들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고 노력하는 곳이다.	3.68±0.90

특성	내용	Mean ±SD (범위: 1~5점)
방향	대학생들의 정서적 지지와 심리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중심	3.69±0.89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서비스 중심	3.65±0.91
	대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	3.79±0.90
	대학생들의 다양한 문화 창출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돕는 서비스 중심	3.67±0.90
	학교폭력 및 성폭력을 당했거나 건강상태에 위협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심리건강 서비스 중심	3.63±0.88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멘토링 서비스 중심	3.67±0.88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경제지원 서비스 중심	3.70±0.92

* 무응답자 제외

3. 평생지도교수제

1) 평생지도교수 상담 경험

평생지도교수(멘토교수)와 상담을 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866명(64.2%)이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표 9), 상담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한 학기당 상담횟수를 조사한 결과 1회 464명(55.5%), 2회 293

명(35.1%), 3회 51명(6.1%)로 나타났다(표 10).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상담경험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상담경험은 여학생이 682명(71%), 남학생이 184명(47.5%)이었으며, 학년에 따른 결과는 1학년이 344명(25.5%)으로 가장 많았다.

〈표 9〉 평생지도교수와의 상담 경험

(N=1,349)

구분	N	%
예	866	64.2
아니오	483	35.8

*무응답자 제외

〈표 10〉 평생지도교수와의 학기당 상담 횟수

(N=835)

상담횟수	N	%
1	464	55.5
2	293	35.2
3	51	6.1
4	19	2.3
5	5	0.6
7	1	0.1
8	1	0.1
10	1	0.1

*무응답자 제외

학부별 교수 상담경험을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학부가 407명(30.2%)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상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3) 상담내용

지도교수와 상담 한 내용은 진로 및 취업문제 635

명(46.1%), 학업문제 574명(41.7%), 경제문제 40명(2.9%)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도교수에게 원하는 상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진로 및 취업문제 109명(54.1%)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업문제 641명(31.8%), 경제문제 91명(4.5%)으로 나타났다(표 12).

〈표 1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평생지도교수와의 상담경험

(N=1,348)

특성	구분	예 N(%)	아니오 N(%)
성별	남	184(47.5)	203(52.5)
	여	682(71.0)	279(29.0)
학년	1학년	344(56.8)	262(43.2)
	2학년	334(66.7)	167(33.3)
	3학년	154(76.6)	47(23.4)
	4학년	34(85.0)	6(15.0)
학부	보건의료학부	407(64.1)	228(35.9)
	보건복지학부	109(85.2)	19(14.8)
	호텔관광외식학부	111(56.9)	84(43.1)
	간호학부	131(90.3)	14(9.7)
	한류예술학부	67(52.8)	60(47.2)
	군사학부	40(34.2)	77(65.8)

*무응답자 제외

〈표 12〉 평생지도교수와의 상담 내용

(N=857)

특성	구분	N	%
상담한 내용	학업문제	574	41.7
	진로 및 취업문제	635	46.1
	이성문제	30	2.2
	성문제	11	0.8
	가족문제	18	1.3
	성격문제	15	1.1
	경제문제	40	2.9
	친구문제	21	1.5
	건강문제	10	0.7
	기타	22	1.6
원하는 상담 내용	학업문제	641	31.8
	진로 및 취업문제	1091	54.1
	이성문제	52	2.6

특성	구분	N	%
원하는 상담 내용	성문제	9	0.4
	가족문제	15	0.7
	성격문제	55	2.7
	경제문제	91	4.5
	친구문제	28	1.4
	건강문제	16	0.8
	기타	20	1.0

*중복응답

3. 고찰 및 제언

본 학생생활상담연구소의 실태조사는 전체 재학생을 표본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전체 재학생의 특성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1) 학생생활상담연구소의 역할 증대

학생들의 고민문제에서 진로나 취업문제가 60.9% 그리고 학업문제가 24.0%로 조사되었다. 이는 학생들 거의 대부분의 고민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러한 고민들은 지도교수와 상담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평생지도교수와 상담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35.8%나 되는 것은 학생의 소극적인 상담태도와 상담시간의 불일치 또는 지도교수에게 주어진 과도한 업무로 인한 상담준비 부족 등의 원인으로 평생지도교수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학생생활상담연구소에서는 평생지도교수 상담이 주기적이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상담 매뉴얼이나 주요상담 브로셔 등을 제작 배포하여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며, 학교 당국에서는 상담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사일정을 계획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에 미치지 못한 소수의 고민이기는 하나 이성, 성, 가족, 성격, 경제, 친구 그리고 기타문제들에 대해서는 특정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학생생활상

담연구소의 역할이 크다. 평생지도교수라 해도 전문분야가 아닐 때에는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학생들을 연계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학생생활상담연구소에는 상주하는 전문 상담원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심각성이 나타날 때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학생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고민 상담자로 친구나 선배(51.5%)를 가장 많이 대답한 반면에 학생상담센터(0.8%)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가장 편한 주변 사람이 친구나 선배라는 것을 뜻하며, 상담센터를 어려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담실은 친구나 선배와 같은 이미지로 다가가야 할 것이다.

2) 학생생활상담연구소의 활성화

학생생활상담연구소의 인식도는 ‘전혀 몰랐다(45.0%)’가 가장 많았으며, 이용경험(9.6%)은 낮았고 이용경로는 ‘본인 스스로’가 40.2%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그동안 학생생활상담연구소가 상징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용한 적이 없었던 대상자들도 ‘혼자 노력하다 안 되면 찾아가겠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등의 응답이 많은 것으로 보아 학생생활상담연구소의 활성화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용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매우 만족, 만족 그리고 보통이라는 응답(87.5%)이 많아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결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활성화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학생생활상담연구소의 활성화 방안 중 가장 큰 것은 홍보로써 가장 좋은 방법으로 유인물(소책자나 브로셔 배포 등),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위한 홍보, 학교 축제나 이벤트를 통한 홍보,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적극 활용 등의 근소한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속적인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진행 등을 통해 편안한 환경과 친근한 이미지로 활성화해나간다면 ‘학생이 행복한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중심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학교 측에서는 노력해줘야 할 부분은 ‘상담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보다 이용하기 좋은 친근감 있는 시설 확충’,

‘학생종합문화공간과 같은 이미지 개선’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연구소 스스로는 ‘성격, 진로, 심리정서 등 자아탐색과 성장을 위한 보다 다양한 심리검사 진행’ 과 ‘학생생활상담연구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하겠다.

학생생활상담연구소에서는 학생들에게 적성, 진로, 취업, 교양에 관한 다양한 심리검사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대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경제지원 서비스 중심’, ‘대학생들의 정서적 지지와 심리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중심’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참고문헌

- 손연아, 『대학생 내담자의 상담준비와 상담서비스요구의 관계』, 충남대 석사논문, 2011.
- 손요한, 『개년도 방법론을 활용한 대학신입생의 상담요구 분석』, 전주대 석사논문, 2014.
- 오은정, 김민선, 정소라, 「2014학년도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생활연구」, 『학생생활연구』 제28권, 상명대학교, 2015.
- 오은정, 김민선, 정소라, 「2013학년도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생활연구」, 『학생생활연구』 제27권, 상명대학교, 2014.
- 이유정, 「2011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연구」, 『서강상담연구』 제5권, 서강대학교, 2012.
- 이혜숙, 송선옥, 「경상계열 대학생의 취업의식 실태조사」, 『한국산업경제저널』 제3권(3), 2011.
- 임희경, 「2012학년도 신입생실태조사 연구」, 『서강상담연구』 제5권, 서강대학교, 2012.
- 장순정, 「2013학년도 학생상담센터 활동보고 및 이용자 만족도 분석」, 『학생생활연구』 제31권, 원광대학교 학생상담센터, 2014.
- 정은영, 『학생상담센터 실태조사를 통한 이용만족도 향상 방안』, 성균관대 석사논문, 2012.
- 최귀덕, 「전문대학생의 음주행태 및 음주문화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전문대학 교육연구학회논문집』, 9(1), 2008.